

시온 주보

제2540호
2025년 1월 12일(다해)

주님 세례 축일

이젠하임 제단화의
십자가 형(부분)

마티아 그뤼네발트
(Matthias Grünewald, 1470-1528)
1515, 패널에 유채
운터린덴 미술관, 프랑스 콜마르



입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또는 40,1-5,9-11>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㉑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

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또는 티토 2,11-14; 3,4-7>

복음환호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당신, 최고의 선물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명동대성당 주임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성탄 시기 동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기는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의 신비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예언자는 “여기에 나

의 종이가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42,1)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을 세례자 요한 또한 예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루카 3,16 참조)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와 증인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자기 삶에서 일어난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이 일치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합시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곳곳이 서서 단호하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고 선포합니다. 마티아 그뤼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단화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당시는 전 유럽에 페스트가 만연하던 고통의 시기였고, 화가는 십자가상 예수님의 상처와 고통을 아주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옆에는 잘 그리지 않는 세례자 요한을 세워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킴으로써 혼란과 분열,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향할 곳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빅토르 할아버지



백현실 라우렌시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칠레 선교사

빅토르 할아버지는 길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생김새조차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형클어진 머리와 수염, 큰 키에 바짝 마른 두 발에는 신발도 없었습니다. 70세는 족히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 정보 경찰 출신으로 민주 인사들에게 고문을 가하던 경찰이었다는 것, 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 10년을 넘게 떠돌아다니며 지낸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웃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가끔 기분이 나빠지면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이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통에 다른 노숙인들과 달리 친구도, 강아지도 할아버지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를 보면 “중국 공산주의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커피와 햄버거를 건넸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빅토르 할아버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면 웃으며 인사도 건네셨습니다. 바오로딸 서점 앞을 지나갈 땐 큰 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어떤 날엔 사람들에게 얻은 동전 한 움큼을 서점에 던져주고, 마시던 콜라와 감자튀김을 문 앞에 놓고 가면서 크게 웃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할아버지에게 가끔씩 커피와 빵을 사드리면 거부하지 않고 활짝 웃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별로인 날에는 시원하게 욕을 날리고 가십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은 그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연세도 많았지만, 영양실조에 폐렴이 겹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자신의 죄에 짓눌려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오랜 시간 한겨울의 추위와 뜨거운 햇볕,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며 죽음에 이르도록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며 살아간 한 사람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개인이 거대한 국가의 폭력에 휩쓸려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30여 년 전, 칠레는 민주주의를 되찾았지만, 그 독재자는 천수를 누렸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빅토르 할아버지처럼 불의에 동참한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 마치 모든 잘못들이 그들과 함께 사라져 버린 양,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단지 몇몇 개인의 생각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한컷 묵상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2)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광야 속의 오아시스



김영선 루치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된 기원전 587년의 사건과 이어진 바빌론 유배가 가져온 절망은 아주 깊었습니다. 바빌론 유배지의 유다인들에게 더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그들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이사 49,14)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곁에는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디만, 그의 예언 말씀이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편의상 그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바빌론 유배지에서 그는 유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는 주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또한 예언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나는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으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젖나무를 함께 심으리라.”(이사 41,18-19) 당시 유배민들의 삶이 광야요 메마른 땅과 같았다면, 하느님께서 그들의 삶을 못이나 수원지처럼 생명력이 풍부해지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막이 못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메

마른 땅이 수원지가 될 수 있습니까? 광야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겠습니까?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엔 게디 국립공원을 가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유다 광야의 동쪽, 사해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엔 게디에는 이스라엘 남부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자리합니다. 처음, 이 오아시스를 보았을 때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광야 속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자그마한 샘이 아닙니다. 폭포수가 흐르고 푸른 잎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잠시나마 광야 가운데 있음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내린 비와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어 물길을 만들고 그 작은 물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합쳐지고 합쳐져서 이 오아시스를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사막이 못이 될 수 있고, 메마른 땅이 수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회생하였습니다. 유배민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제2 성전을 짓고 다시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굳건히 믿으며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이런 창조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곤 합니다. 간혹,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있습니다. 이 시선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마르12,17)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국가에 간섭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톨릭 사회교리는, 일단 교권(교회의 권한)과 공권(국가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권이 공권보다 앞설 경우, 교회는 정치와 결탁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할 위험이 있으며 다른 종교인들과 갈등의 위험이 있고 세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권이 교권보다 앞서게 되면, 종교의 독립성이 방해받게 되고 올바른 윤리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종교와 조화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규범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활동하고 교회를 다스릴 권한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가 ‘공동선, 공공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우리 가톨릭 교회는 현세 질서에 대해 아무런 정치권력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는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정의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 김수환 추기경님은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을 진압하려는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학생들을 체포하려면 제일 먼저 나를 밟고, 그다음 신부들을 밟고, 그다음에 수녀들을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정치 영역에는 관할권이 없지만 적어도 윤리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직무는 정치 생활에 관한 윤리법들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사목헌장 76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에 교회는 전쟁과 환경에 대해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에 대해서도 윤리적 주제라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여가 아닌, 세상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느님의 질서에서 오는 책무입니다. 단, 교구장님께서 올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셨듯, 이것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해와 일치를 통해 하느님의 질서를 이루고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와 겸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 전달식

지난 11월 15일, 명동 교구청에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Carlo Acutis, 1991~2006)의 유해 전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윌 콘퀘르(Will Conquer) 신부님께서 정순택 대주교님께 복자의 1차 유해인 머리카락 16점과 유해 증명서를 전달하셨습니다.

2023 리스본 WYD의 수호성인 중 한 명이었던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2025년 회년에 시성될 예정이며, 이는 최초의 밀레니얼 세대 성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아쿠티스 복자는 199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성장한 청



소년으로, 2006년 15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복자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성체 기적과 성모 발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정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려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자의 삶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며,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방문한 첫 순례자가 되셨습니다. 서울대교구는 2025년 회년 기간 중 명동 교구청에 위치한 WYD 조직위원회 센터에 복자의 유해를 모셔, 젊은이들과 신자들이 성인을 공경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과 신앙이 젊은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회년을 맞이하는 올해) 영적인 목표로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권고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희망을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

교구 소식 | 2025년 정기 회년 선포

회년을 개막하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메시지

비롯됩니다. 이번 회년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될수록, 가장 심하게 피해를 받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회 모순의 굴레에 귀속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이주민, 병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 회년이 우리 모두와 우리 사회의 회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당부합니다. (희망의) 시작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며,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부터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2월 29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2025년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강론 요약

사목국
회년 책자 QR



여러분은 어떤 어른인가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도서 《어떤 어른》

지난 2015년,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쓴 동시집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시집 안에 실린 한 편의 시가 문제가 되었는데, 학원에 가기 싫은

어린이의 심경을 매우 직설적이면서도 기이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기성 언론들에서 일명 ‘잔혹 동시’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는 동시집을 낸 어린이와 어린이의 부모에게 온갖 나쁜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동시집을 향해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책’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결국 동시집은 전량 수거되어 폐기되고 맙니다.

얼마 후, 한 일간지의 논설 위원이 쓴 기고문에 이 시를 두둔하는 내용이 실립니다. “처음엔 섬뜩했고,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지만... 30년도 더 지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소녀의 마음이 궁금해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논설 위원은 시를 쓴 어린이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어른들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자신의 소녀 시절이 떠올랐다고 고백합니다. 또 학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느껴져 끔찍해 보였던 시가 슬프게 다가왔고, 시를 쓴 어린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고도 말합니다.

지난 2021년에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쓴 김소영 작가의 신간 《어떤 어른》은, 어린이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자리를 살피고 어린이가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어른의 역할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보통 어린이와 어른의 관계를 생각할 때 흔히 미성숙한 어린이를 지켜보는 어른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어린이 역시 어른을 보고 있음을 상기합니다. 그렇게 어른을 보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배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리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어린이가 하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억하고 짐작하며 기다려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어른이라면 ‘어떤 어른’이어도 좋다고 작가는 말하며, 어린이에게 필요한 다양한 어른들의 모습을 책을 읽는 독자들이 떠올려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어떤 어른》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장난을 치는 극히 일부의 어린이들을 두고 민식이법을 부당한 법으로 여기는 어른이기보다 어른들의 부주의함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어린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닐 줄 아는 어른, 지금 당장의 편리함에 집착하는 어른이 아닌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을 현재의 동료 시민으로 여기며 그들이 누리게 될 미래를 위해 기꺼이 일상 속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어른, 어른의 마음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긴 호흡으로 헤아려볼 줄 아는 어른, 일상 안에서 자신을 향한 어린이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어른, 어린이들의 모습 안에 숨겨진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포착해 낼 줄 아는 어른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1월 12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47년 1월 18일 박원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정순택 대주교 애도 메시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마주한 유가족과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통감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 당국은 사고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이 고통의 시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모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미사: 1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 (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 모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2월 30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1월 23일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025년 1월 26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내 1층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 / 전화(상담): 02)727-2137

2025년 사순-부활 전례음악 심포지엄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
때: 2월 22일(토) 10시~17시30분
등록: 1월 13일(월)~24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게시판 참조
곳: 최양업홀(중림동) / 문의: 02)393-2213~5

'슬픔 속 희망찾기' 2025년 1월 유가족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이인제 신부(예수회)
때, 곳: 1월 18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죽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때, 곳: 1월 19일(주일), 곳: 명동대성당 · 서소문 박네거리 순교성지 · 절두산 순교성지 · 새남터 순교성지 · 당고개 순교성지 / **문의:** 02)269-0413
신청: 1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3만5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형규 개인전: 1전시실
심순화 개인전: 2전시실
박재승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월 17일(금)~1월26일(주일)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7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위원회

1) 청년평화감수성피정 모집안내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청년(만 20세~39세 미만) 30명
때: 2월 15일(토) 13시~16일(주일) 14시(1박 2일)
곳: 샬트르수도회 성바오로 피정의집(경기 시흥)
내용: 현대, 평화감수성교육 / **회비:** 5만원
문의(신청): 010-4682-2412(문자신청-참가안내품 발송)

2) 1440차(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 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함흥교구 청진 본당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3월 24일~4월 4일(1박 12일) / **지도:** 김상우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레사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이스라엘 8월 피정: 11월 12일~21일(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문의(신청): 02)727-235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1) 교황의 생명교실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누구나 / **회비:** 1만원
교육내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때: 2월 5일 · 12일 · 19일 · 26일 매주(수) 20시~21시30분 / **강의방식:** 온라인(Zoom)

2) 임신부와 태아의 회년(태아축복식)

대상: 임신부, 남편, 가족 등 250가정
때, 곳: 3월 30일(주일) 13시30분, 명동대성당

3) '어른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자연주기법(NFP) 교육 17기

때: 3월 13일~5월 29일 매주(목) 20시~21시30분(총 10주)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자연주기법을 배우고 싶은 개인, 부부 /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
모집마감: 3월 7일(금) / **강의방식:** 온라인(Zoom)

4) 참생명학교(생명윤리) 기초 교육 8기

때: 3월 14일~5월 9일 매주(금) 20시~21시30분(총 8주간) / **모집마감:** 3월 7일(금)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회비:** 5만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임(성빈센터청소년회)

때, 곳: 1월 19일(주일) 13시, 빈청(전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 / 문의: 010-6880-9605(www.stvin.or.kr)

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월 23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말씀·찬양·안수: 정병덕 신부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화창
1월 14일 이상옥 선교사 1월 21일 김종국 신부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1월 15일 / 회비: 3만원	정규한 신부
'영신수련 맛들이기' 기도실습 10주 강좌	3월 6일(목) 개강 13시30분~16시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2월 28일~3월 2일, 3월 21일~23일
사순 1일 피정	3월 6일, 3월 7일, 3월 13일, 3월 14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3월 18일~27일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www.jesumaum.org)

이나시오 영신수련	2월 21일(금)~25일(화) 4박5일
예수마음기도	2월 7일(금)~9일(주일) 2박3일
사계절하루 피정	봄 2월 22일(토), 숨 2월 28일(금)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2월 25일~26일, 3월 25일~27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5월 14일~25일(KE)
홍성남 신부와 도교	3월 10일~14일
남규슈 이브스키	5월 6일~10일(KE)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2월 14일(금)~16일(주일)	김선태 주교(전주교구)
3월 14일(금)~16일(주일)	서상범 주교(군중교구)
4월 17일(목)~20일(주일)	성주관 피정(기도학교)
5월 16일(금)~18일(주일)	전현호 신부(대구교구)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2월 14일(금)~15일(토), 3월 8일(토)~9일(주일)
3박4일	2월 17일(월)~21일(금), 4월 5일 2월 26일(수)~3월 1일(토)
8박9일	신학생 일반 2월 3일(월)~11일(화), 3월 13일(목)~21일(금)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예수기도 피정 / 문의: 010-5230-2986

때, 곳: 1월 31일(금) 15시~2월 6일(목) 13시,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주최) / 회비: 40만원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김영철 신부(전국대표담당 의정부교구담당 4지구장)
때, 곳: 1월 15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포함 1월 16일~18일·1월 20일~22일·2월 7일~9일·2월 21일~23일·2월 25일~27일, 3월 1일~3일·3월 8일~10일·3월 13일~16일(주차도)·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주)·3월 29일~31일·4월 1일~3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한라산 눈꽃산행 1월 17일~19일·1월 23일~25일·2월 8일~10일·2월 14일~16일·2월 22일~24일, 주차도포함 성지순례 3월 1일~4일·3월 9일~12일·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3월 22일~24일·3월 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시스띠나 음악원 수강 모집 / 문의: 010-9842-8818

발성 교실, 그레고리오 성가(지휘·반주·기초)

성물·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때: 3월~11월 (주일) 16시~18시 / 회비: 12만원씩 3회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지도)

노들담 첫영성체 교리서 일일 연수

때, 곳: 2월 1일(토)·3일(월), 노들담교육관(서울)
문의: 010-3829-7667 교리교재 연구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6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선교아카데미 제14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 6일~8월 28일 매주(목), 한국의방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이콘연구소 23기 신입생 모집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대상: 65세 미만 / 문의: 02)313-9973
실기시험: 2월 22일(토)·2월 24일(월) 10시30분
개강: 3월 4일(화) / 지도: 장국선 신부
곳: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21시20분 (15주) /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3월 6일 개강,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곳: 성 바오로 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강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 1월 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월 14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2025년 예수회 청년 마지스서를 3기 모집

이나시오 영성 배움터, 여름 제주 마지스 대회
대상: 33세 이하 청년 / 인스타그램: @magis.kr
때: 일정 2월~7월 월 1회 배움터·첫모임 2월 22일(토) 14시·제주 마지스 대회 8월 5일~12일(3일간 파견 체험 포함) / 신청링크 통해 접수(면접 선발)
문의: 02)3276-7706, 010-9797-2331(magis.kr@gmail.com) 예수회 청년센터 / 회비: 50만원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1월 17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 (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제)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및 비대면(Zoom·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현장 강의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발타사르와 슈파이어의 공동사명	서명원 신부 김영근 신부 김관희 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영성과 철학상담 1단계, 세상과 마주하기-삶의 위태로운 순간, 철학에 귀 기울이다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김영근 신부

모집

무반주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리사울합창단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남성 교우 / 010-9464-0680 단장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모집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청회' 검색 후 문의 또는 전화·문자(010-3098-2192) 문의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명동성당 또는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회원 모집 / 문의: 010-9098-6765, 010-4189-8396
하느님을 사랑한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 교우 / 3월 14일까지 접수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문의: 010-2633-2025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1월 19일(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서울대교구 어린이 합창단 '마니파켓' 2025년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3~6학년 가톨릭(예비) 신자(3월 기준)
연습: (화) 18시·(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때: 1월 19일(주일) 14시30분 / 문의: 02)338-7832
곳: 청년문화공간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게시판 참조

2025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 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수도원, 02)793-2070 끈뎀루알 수도원, 010-3371-8790 카푸친 수도원, 010-8477-6489 청년회(유프라 / 만 35세 미만), 010-9600-6358 주중형제회(수요일 오후)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월 16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월 13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월 17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월 20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자아성장촉진 리더십 훈련(전진상영성센터)

나와 타인의 마음 헤아리기, 성장을 촉진하는 내적 리더십 훈련 / 문의: 02)726-0700
때: 2월 5일~4월 9일 매주(수) 10시~13시(총10주)
곳: 전진상영성센터(명동) / www.jjisce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중환자심리검사
다습 젊은이 기도모임	매월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월 21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부부모임 초대의 날

월 1회 생활과 복음을 나누는 가정공동체를 원하는 부부
때, 곳: 1월 19일(주일) 13시~16시,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 문의: 02)744-084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전문센터	모래놀이·미술치료 /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노인·아동·청소년·성인, 자녀·부부갈등, 중독, ADHD, 우울, 공황장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토닥토닥 마음챙김	매주(수) 10시~12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과정	2월 11일~3월 11일(화) 10시~15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청소년활동 지도(활동운영팀)
2월 16일(주일)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한국카리타스인태내셔널 직원 모집

분야: 후원관리 및 홍보 1명(계약직)
1월 17일(금)까지 이메일(caritas@cbck.or.kr) 접수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미정의 집, 진관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명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 업무: 조리 등 제반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타교구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rt@seoul.catholic.kr) 접수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마케터	도서 및 콘텐츠 기획·마케팅
편집국	북디자인 및 기타 편집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노틀담 수녀회	1월 24일(금) 20시~26일(주일) 15시 / 성소 피정	수녀원(인천 계산동)	010-3930-6730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암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알고 믿으면 희망이 되는 종말론 이야기

명형진 지음
성서와함께 | 316쪽 | 1만7천원
문의: 02)822-0125

‘종말’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주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종말은 두려운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23 로마서

토마스 H. 토빈, 세일라 E. 맥킨 지음
성서와함께 | 276쪽 | 2만1천원
문의: 02)822-0125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23권에는 ‘신약성경 서간 개관’과 ‘로마서 입문·주해’를 담았다. 신약성경 서간 개관은 현대 독자에게 낯설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서간들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고, 고대 서간의 기록과 전달 방식을 설명한다. 로마서 입문·주해는 바오로가 선포한 복음,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 계획,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충실히 해설한다.



신간

가톨릭 학교 교육 문법

리처드 M. 제이콥스 엮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92쪽 | 1만8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가톨릭 학교 교육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적절한 양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 학교에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톨릭 교육의 철학, 역사 및 신학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신간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사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336쪽 | 1만5천원
문의: 02)460-7582~3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편찬한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사》는 한국 가톨릭 학교가 걸어온 길을 1784년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박해 시기-개항기-일제강점기-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군부정권 시기-민주화 시기)로 정리하여, 그 길을 돌아보고 기억하고자 하였다.



신간

요점 따라 기도하기

정규한 지음
마리페이퍼 | 372쪽 | 3만원
문의: 010-3845-3045

이 책은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를 배우려는 신자들이 기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이다.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고 오른쪽에 있는 요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영신수련에서 언급하는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를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연극

꽃의 비밀

공연 기간: 2월 8일(토)~5월 11일(주일) (수) 15시, (목) 19시30분, (금) 15시, 19시 30분, (주말, 공휴일) 14시, 18시(월·화 공연 없음) / 문의: 02)6925-0419
공연 장소: 링크아트센터 박스홀
입장권: VIP석 7만7천원, R석 6만16천원, S석 5만5천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이탈리아 시골 마을의 평범한 주부 4명이 펼치는 예측 불허 코믹 변장 소동! 축구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하던 남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이제 남편들을 대신해 20만 유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주부들의 기발한 작전이 펼쳐진다. 장진 연출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막강한 캐스트가 함께하는 이번 연극이 관객들을 흥겨운 무대로 초대한다.